'빛고을 중소기업 지원단' 이 24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장·기업인 등 참여 '빛고을 중기지원단' 첫 회의

중소기업 사장님들 얼굴좀 펴지려나

내달부터 '공무원 기업도우미제' 운영도

광주시가 24일 오후 빛고을 중소기업 지원단 첫 회의를 갖고 광주시와 유관기관, 기업체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마쳤다. 또 다음달부터는 공무원이 전담해 개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공무원 기업도우미제'가 운영된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빛고을 중소기업 지원단 첫 회의에는 광주상공회의소회장,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광주은행장,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등 기업지원 유관기관장 및 금형산업진흥회장 등 기업인 등 36명이 참여했다. 이날 개별 기관장들은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대책을 제시했고 강 시장은 이를 조율·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과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날 '중소기업 구인난과 미취업자의 구직난'이 반복되는 인력 미스 매치 해결방안으로 '중소기업 빈 일자리 고용알선사업',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중소기업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등을 제시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등을 위해 300억원 미만 자산의 기업이 3%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반 운영', '지역산업단지 금융지원협약' 등의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빛고을중소기업지원단은 이날 기관들이 내놓은 안건의 후속조치 및 추진을 위해 실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또 광주시는 최근 5년 이내 신설·증설·이전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처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경제 관련부서 공무원 66명을 기업 도우미로 지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다 체계적인 기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정보, 도우미 활동상황, 제도개선사항, 애로·건의사항 해결상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기업이 공직자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최저가 낙찰제 확대 안된다"

전남건설협 등 민주당에 건설경기 활성화 건의

건설업계가 민주당에 '건설산업 위기 타개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대책 마련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24일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최상준 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 등 건설업계 대표들이 전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과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폐지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를 10~20% 상향 조정 등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또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확대 적용과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조정,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비율 확대 등도 건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최상준 회장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 계획 폐지와 대형 공사에 대한 분할발주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최 회장은 예산 절감을 위해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키로 한 정부의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최 회장은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에게 "적정공사비 확보 곤란에 따른 저가 하도급, 저임금 고용으로 중소건설업과 연관산업의 경영악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저가 공사로 인한 부실 시공의 우려마저 커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들은 최근 공사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실적과 자금력 부족으로 대형 공사 참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공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고용없는 성장'

제조업 생산 등 증가세 불구 취업자수 감소

최근 광주·전남 기업경기가 되살아나고 있으나 고용사정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의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비농림어업 부문 취업자수가 1만8300명, 서비스업이 4만6500명 감소했다.

이는 희망근로사업 고용규모가 전년의 40%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서비스 업이 크게 위축된 된 탓으로 풀이되고 있다.

6월 중 제조업 생산은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전달(+13.9%)에 이어 14.5%의 증가세를 지속했다. 7월 제조업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93으로 전달(95)보다 떨어졌다.

6월 중 대형 소매점 판매는 백화점을 중심으로 명품과 여성의류 등의 판매가 늘면서 전달(+3.0%)에 이어 4.9%의 증가세를 이어갔고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5로 기준치(100)를 웃돌면서 전달(112)보다 상승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우일렉 매각 관련

본계약 조만간 체결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 움직임 등으로 무산 가능성이 제기됐던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의 매각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대우일렉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이란계 다국적 가전유통회사인 엔텍합그룹과 가격 협상을 매듭짓고 조만간 본계약을 할 계획이다. 다만 매각 가격은 당초 605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이상 깎일 전망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우일렉 채권단은 엔텍합과 가격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주 중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매각 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우일렉의 매각 가격은 당초 엔텍합이 제시한 6050억원에서 4700억~52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가맹형태 SSM도 막을 것"

내부지침 마련 사업조정제도 적용 방침

광주 온 김동선 중기청장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24일 "직영이 아닌 가맹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서도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기청 내부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취임 후 광주를 처음 방문한 김 청장은 이날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SM에 대한 규제는 외국과의 통상 문제 때문에 법률을 통해서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최근 골목슈퍼 보호 문제가 떠오르면서 SSM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해 개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이 어려운 만큼 중기청에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입점 규제 조례 제정은 적절치 않다"며 "중기청이 내부지침을 마련해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뒤에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문제 해결의 핵심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는 것"이라며 "납품단가 인하 압력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이달 내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광주·전남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시설 현대화 등 막대한 재정 문제로 더딘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부담을 높이고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산업 6대 1 감자

소액주주·채권단 차등 실시

금호산업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통주 4억1천487만주와 우선주 1천116만주에 대해 6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2조5421억원인 자본금은 감자 후 4119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회사측은 "소액주주 및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6주를 각각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며 기존 지배주주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우선주식 100주를 각각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지역 전문건설 1위 다우건설 부도

계열사 휴먼스틸도

광주·전남 전문건설업계 실적 1위인 다우건설과 계열사인 휴먼스틸이 최종 부도처리됐다.

24일 금융결제원과 지역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우건설은 주거래은행에서 돌아온 1억1000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이날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다우건설은 이날 광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철근 콘크리트공사 전문인 다우건설은 2001년 9월 설립 후 꾸준해 매출을 늘려 2008년 510억원, 지난해 814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2년 연속 지역 전문건설업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다우건설은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제 첫 시범사업인 경기 안양시 관양지구를 비롯해 영암 삼호읍, 대전 동구, 경기 광명 역세권 등 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주로 참여했다.

광주 선운지구 아파트 등 전국 10여 곳에서 아파트와 대형건물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760.53 (-7.18)
▼ 코스닥지수	474.97 (-2.17)
▼ 금리 (국고채 3년)	3.58% (-0.04)
▲ 원·달러 환율	1,191.00원 (+9.1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